

Vol. 32

# at | FOCU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 목 차

### I. 이슈분석 / 1

- 엔저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파급영향 / 3
  - 1. 엔저의 배경 및 전망 / 4
  - 2.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7
  - 3.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 14
  - 4. 결론 및 시사점 / 21

### II.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25

- 국제 외환 및 원자재시장 / 27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사항 ①일본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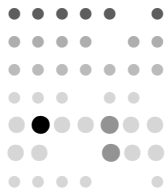
# I. 이슈분석

## - 엔저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파급영향

1. 엔저의 배경 및 전망
2.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및 시사점

부록: 모형 1,2의 분석방법





# 엔저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파급영향 (요약)

\* 작성자 : 허인, 양다영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 현상이 강화되면서 강세기조를 보여 달러당 80엔대를 하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말 아베정부의 출범 이후 제시된 2% 물가목표제, 무제한 양적완화 등으로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2014년에도 엔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 일본 수출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통해서 일본, 미국, 중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엔화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농수산식품의 수요에는 통화완화정책,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 완화 등으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효과로 대 일본 수출을 감소시켰다. 특히 엔저는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신선식품류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농수산물과 우리나라 농수산물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엔저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수출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의 다변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가격 경쟁력 이외의 상품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환헤지를 통해서 외환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 엔저의 배경 및 전망

- ◆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 대비 엔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2012년 말 일본의 자민당의 아베총리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 선언으로 약세로 전환되어 4년 만에 달러 당 100엔대를 기록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회피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가치가 상승(엔화 환율이 하락)
  - 일본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 국내 투자보다 많아 순 해외투자국이며, 금융위기 발발로 인한 해외투자 회수가 당시 엔화 강세의 주요 원인이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현상이 지속되었음.
  -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일본 내 재해보험의 지급 등으로 현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화가치를 더욱 강세로 만들어 엔/달러 환율이 80엔대 이하로 하락함.

### ■ 엔화 환율 추이 ■



주: 음영은 최근의 엔화 약세 시기(2012년 9월~)

자료: Bloomberg.

- 그러나 2012년 9월,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을 내세운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엔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3년 5월 17일 한때 미 달러 대비 32.7% 수준까지 절하되었음.
- 소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제한 양적완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목표제 등 통화완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확대까지 선언하며 침체된 일본 경기부양을 목표로 삼음.

### Ⅰ 일본 자민당(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 Ⅰ

정책 분야	자민당(아베노믹스)의 정책방향
환율	강력한 엔저 유도
재정	확대 재정정책
금융	무제한 양적 완화
중앙은행 독립성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공조 강조
물가관리	소비자물가상승률 2% 목표(target)
성장전략	제조업 국제경쟁력 부활

자료: 정성춘 외, 2013,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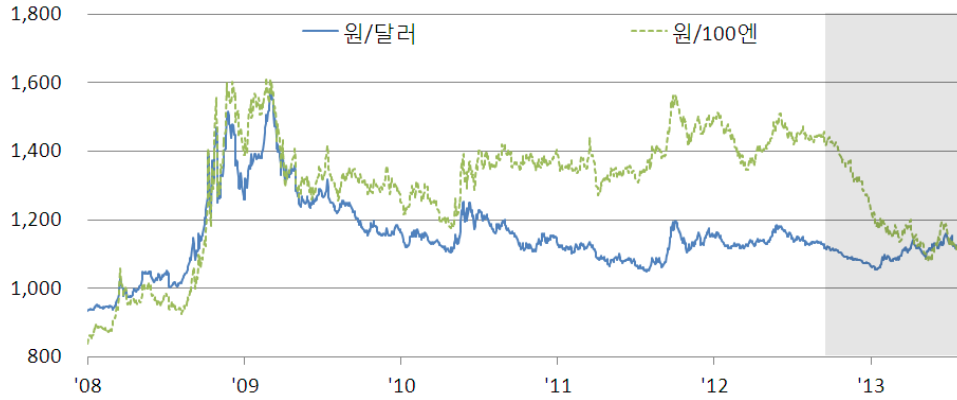
-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선언 이후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어 달러당 100엔 이상까지 상승했음.
- 8월 9일 현재 엔/달러 환율은 96.21엔으로 지난 5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엔화대비 원화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2009년 9월~2012년 9월 사이 원/100엔 환율은 평균 1,371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 9월 이후 20% 이상 하락하여 8월 9일 현재 1,156원을 기록하고 있음.
- 엔화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대일 수출 뿐 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추이 ■

(단위: 원)



주: 음영은 최근의 엔화 약세 시기(2012년 9월~)

자료: Bloomberg.

■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엔/달러 환율 전망 ■

(단위: 엔/달러)

전망기관	전망일	'13년 3/4분기	'13년 4/4분기	'14년 1/4분기	'14년 2/4분기	2014년
Barclays	8월 16일	101	104	104	105	104
Standard Chartered	8월 16일	99	100	102	102	105
Credit Suisse	8월 14일	102	108	113	118	120
Bank of America	8월 13일	103	105	105	106	108
HSBC	8월 9일	99	99	97	95	94
JPMorgan	8월 9일	102	105	106	106	104
Morgan Stanley	8월 2일	103	107	110	114	120
BNP Paribas	7월 25일	106	108	110	114	120
Citigroup	7월 16일	100	105	109	110	110
Nomura	7월 1일	101	102	102	102	106

자료: Bloomberg.



◆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 지속으로 당분간 엔저 현상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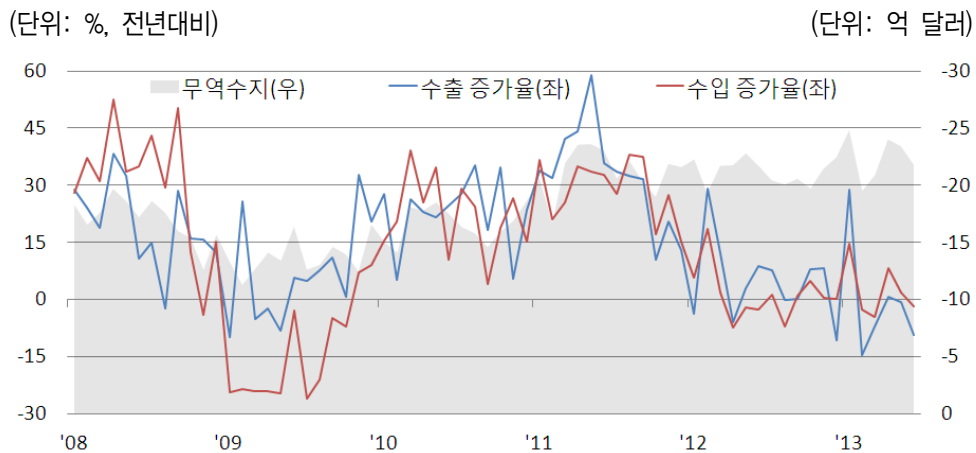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일본 경제지표 개선으로 엔화가치는 지난 5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정책의지로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이와 관련, 국제투자은행들은 엔/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4년에는 달러당 110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Bloomberg 전망치 평균).

**2. 엔저가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증가율(전년대비)은 점차 둔화**

- 그러나 수입 증가율 역시 점차 둔화되어 농수산물식품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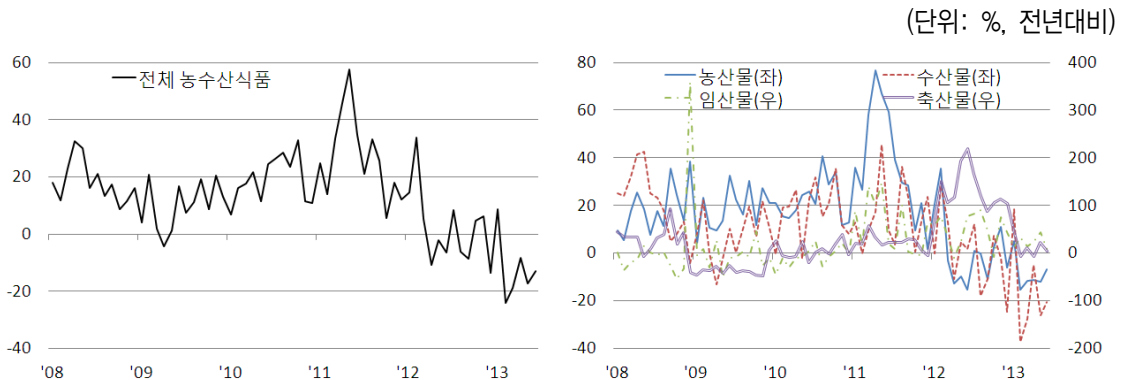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http://www.kati.net)).

◆ **대일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양의 값을 유지했으나, 2011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이 증가했음.
  - 그러나 2012년 들어 불안 심리가 안정되고 전년의 수출증대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
- 품목별로는 수산물(2012년 9월 이후 평균 -13%), 축산물(-7%), 농산물(-5%) 수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임산물(+35%) 수출은 증가

■ 대일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http://www.kati.net)).

◆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줄일 것으로 우려되어 무역흑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엔화 약세는 가격효과로 파악할 때 일본으로의 수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기부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수요확대로 이어지면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대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엔화 약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원화대비 엔화환율, 각국의 산업생산, 수출, 수입과 더불어 농수산물 수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함.
  - 본 분석에서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엔/원 환율의 영향을 살펴봄.
  - 환율 이외의 경기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을 포함하여 분석함.
  - 각국으로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수출자료를 포함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함.

▮ **대일 수출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기초통계량** ▮

대일수출분석						
	일본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 농수산물 수출	엔/원 환율
평균	4.57	4.45	9.56	10.28	4.93	-2.40
중간값	4.57	4.47	9.54	10.30	4.86	-2.41
최대값	4.70	4.70	9.97	10.53	5.45	-2.02
최소값	4.29	4.11	9.09	9.83	4.54	-2.76
표준편차	0.09	0.17	0.25	0.18	0.24	0.22
왜도	-0.83	-0.14	0.23	-0.46	0.47	0.18
첨도	3.77	1.69	2.12	2.31	2.06	1.65

- 주: 1. 데이터는 모두 로그 값임.  
 2. 엔/원 환율은 월별 증가임.  
 3. 데이터의 출처는 한국은행, 무역협회, 농수산물수출정보 등임.

- 벡터자기상관 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sup>1)</sup>을 이용하여 엔저 현상(원화에 대한 엔화의 상대적 가치하락)이 한국의 수출·입, 일본에 대한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 전체 농수산물 수출과 품목별 수출의 상관관계 ■

가공식품									
소주	맥주	김치	라면	인삼	막걸리	음료	비스킷	유자차	고추장
0.24	0.80	0.37	0.77	0.32	0.74	0.66	0.56	0.29	0.49
신선식품									
백합	파프리카	장미	국화	토마토	고추	밤	채소종자	딸기	송이버섯
0.48	0.54	0.70	0.34	0.49	0.22	0.07	0.08	0.16	-0.07

- 대일 농수산식품의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 표에서 명시한 가공식품 10개 품목, 신선식품 10개 품목 총 20개 품목을 추가하여 분석함.
  -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품목별 수출은 부록에서 명시한대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 이후에 하나씩 차례로 추가하여 분석함.
  - 다만 밤과 송이버섯의 경우 자료가 분석기간 중 불연속적으로 존재하여 분석할 수 없었음.
- 분석결과, 원화대비 엔화가 10% 절하될 때, 가공식품 중에서는 소주 만이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소주는 엔화 10% 절하 후 3개월, 6개월 후에 각각 12.4%, 17.5%의 수출 감소가 나타남.
  - 이외의 다른 품목의 수출도 엔저현상 발생이후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음.
    - 따라서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소주 이외의 품목의 수출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

1) 자세한 분석방법은 부록 참조

- 가공식품의 경우 일본시장에 가격 경쟁 이외에도 제품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 원화대비 엔화 10% 절하시 가공식품 수출의 누적 반응 ■

(단위: %)

가공식품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소주	-12.37*	-17.53*	-15.77
맥주	1.01	0.21	0.15
김치	-5.26	-13.12	-12.02
라면	-2.03	-5.84	-6.59
인삼	-0.94	-3.67	0.10
막걸리	-11.68	-15.39	4.05
음료	-1.75	-14.61	-18.69
비스킷	-9.81	-26.11	-40.97
유자차	-7.96	-8.67	1.24
고추장	-4.78	-23.69	-47.32

주: 1. VAR 모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음.

2. \*는 수출 감소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의미함.

### ■ 원화대비 엔화 10% 절하시 신선식품 수출의 누적 반응 ■

(단위: %)

신선식품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백합	-13.14*	-32.84	-50.91
파프리카	-14.58*	-21.56*	-20.27
장미	-18.18*	-27.27	-28.37
국화	-9.94	-14.80	-14.18
토마토	-3.18	-25.08	-55.84
고추	-13.72*	-26.43*	-34.75
채소종자	-19.76	-35.70	-42.40
딸기	-82.78*	-103.31	-62.10

주: 1. VAR 모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음.

2. \*는 수출 감소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의미함.

## ◆ 신선식품의 경우, 원화대비 엔화의 10% 평가 절하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출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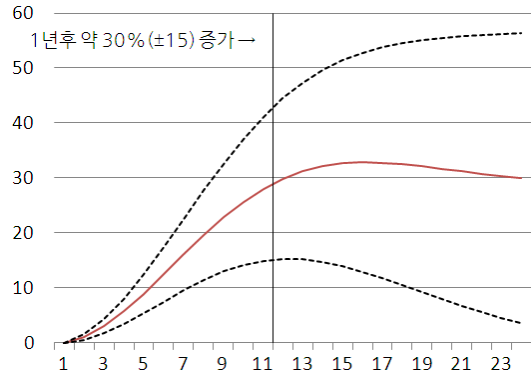
- 신선식품은 가공식품과는 달리 제품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가격 경쟁이 심함.
- 10가지 품목 중 밤과 송이버섯을 제외한 8개 품목은 엔화 10% 평가절하가 3개월 후 3.2%~83%의 수출 감소를 가져왔음.
- 토마토와 딸기를 제외하면 엔화 10%약세는 약 10%에서 2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함.
- 엔화 약세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출 감소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 방법상 장기 효과에 대한 결과는 신빙성이 높지 않음.
  - HP필터를 이용하여 장기추세 이외의 부분을 분석했으므로 단기 충격에 대한 해석은 신뢰도가 높으나, 장기충격은 장기추세를 포함한 분석(예를 들어, 공적분 분석 등)을 통해서 해야 함.

## ◆ 엔저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대일 수출 전체는 증가하나, 식품 수출은 공산품과는 달리 경기부양 효과가 적고 가격경쟁력 악화 효과가 커 수출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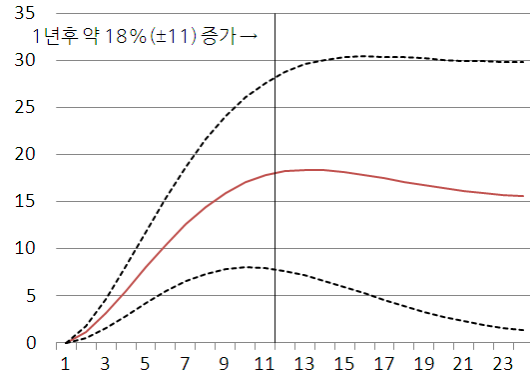
-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 본 분석에는 엔화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으나, 엔화 약세는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 혹은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 완화 등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두 가지 원인 모두 일본의 거시경제를 부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현상 완화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원화대비 엔화가치 10% 하락시 대 일본 수출 충격반응곡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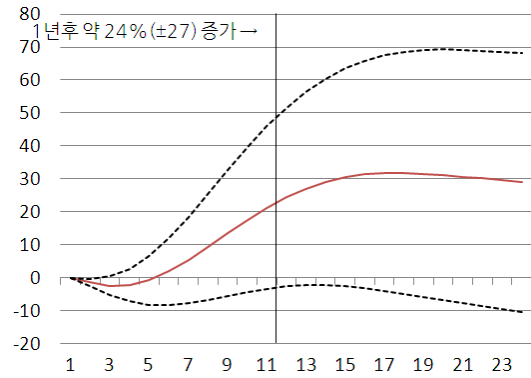
일본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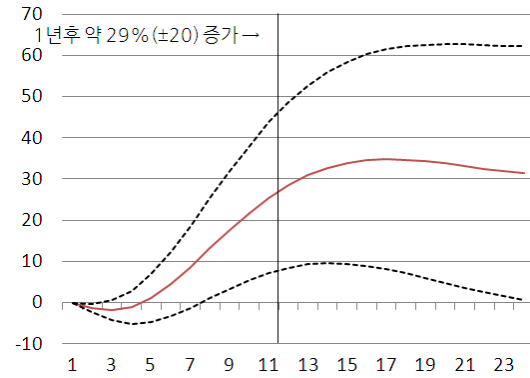
한국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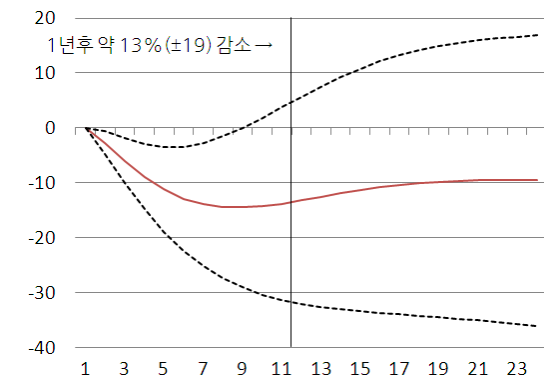
대일 수출 : 유의하지 않음.



대일 수입 : 증가



대일 농수산물 수출 : 감소



- 주: 1. 점선은 90% 신뢰 구간이며, 모든 선이 함께 x축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는 구간은 충격반응의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음.  
 2. Cholesky ordering: 일본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일 수출, 대일 수입, 대일 농수산물 수출, 엔/원 환율(증가)

- 다만 일본의 통화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효과는 일본 산업 생산 증가보다 작았으며, 지속력도 길지 않았음.
-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나 수입을 더 크게 증가시킴.
  - 엔화 약세는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에 가격 경쟁력 상실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나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면서 대 일본 수출을 1년 후에는 증가시켰음.
  - 대 일본 수입에 경우, 초기에는 경기부양으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아 달러 단위 일본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에 따라서 수입이 증대되었음.
- 그러나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효과로 전체 수출은 증가시키나 대 일본 농수산물식품 수출을 3개월, 6개월 후 각각 5.9%, 12.8% 감소시킴.
  -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식품 수출 가격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오며, 식품의 특성상 경기부양에 따르는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대 일본 수출 전체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3. 일본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도 영향**
  - 엔화표시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상승시켜 대일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다만 일본 아베정부의 경기부양효과로 소비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면 대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켜 전체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경기회복의 긍정적인 파급영향이 크다면, 해외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의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일본 외에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을 분석함.**

- 이 분석에서는 엔/원 환율이 가장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고 가정을 하였고, 엔저로 인한 일본과 한국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한국의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대미, 대중 수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기초통계량** ■

대미 수출 분석						
	엔/원 환율	미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미수출	대미수입	대미 농수산물 수출
평균	-2.40	4.59	4.45	10.10	9.84	3.65
중간값	-2.39	4.60	4.47	10.10	9.89	3.60
최대값	-2.02	4.66	4.70	10.42	10.20	4.24
최소값	-2.74	4.47	4.11	9.76	9.36	3.09
표준편차	0.22	0.05	0.17	0.18	0.21	0.26
왜도	0.18	-0.67	-0.14	0.17	-0.37	0.29
첨도	1.63	2.72	1.69	2.30	2.09	2.19
대중 수출 분석						
	엔/원 환율	중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중수출	대중수입	대중 농수산물 수출
평균	-2.40	14.42	6.32	10.69	10.28	3.87
중간값	-2.39	15.10	6.50	10.69	10.38	3.79
최대값	-2.02	23.20	35.00	11.24	10.77	4.91
최소값	-2.74	5.40	-20.40	9.75	9.32	2.92
표준편차	0.22	3.67	8.07	0.39	0.41	0.57
왜도	0.18	-0.39	-0.10	-0.39	-0.72	0.37
첨도	1.63	2.55	6.08	2.25	2.43	1.81

- 주: 1. 대중 수출분석의 중국 및 한국의 산업생산을 제외하고 모두 로그 값임.  
 2. 대중 수출분석의 중국 및 한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3. 엔/원 환율은 해당 월의 평균치를 사용함.  
 4. 데이터의 출처는 한국은행, 무역협회, 농수산물수출정보, CEIC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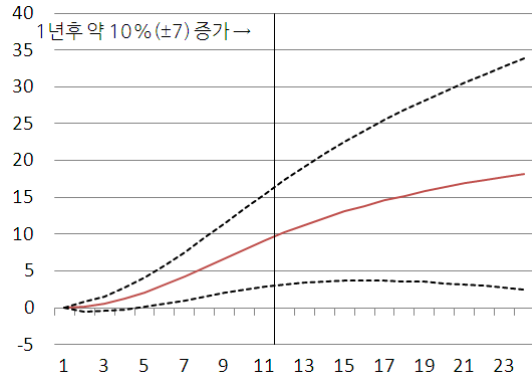
- 즉, 한국과 일본이 특정식품의 수출에 있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경합한다면 엔저의 충격이 한국의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함.
- 대미 수출에 대한 분석의 경우도 똑같은 가정으로 분석하였고 변수는 *엔/원 환율, 미국(중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한국의 대미(대중) 수입, 대미(대중)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 분석의 결과 엔저 충격(엔/원 환율의 상승)에 대한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예상 반응곡선을 도출함.

◆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효과가 파급되어 대 미국의 수출입을 모두 증가시키나, 대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소득효과가 크지 않아 증가시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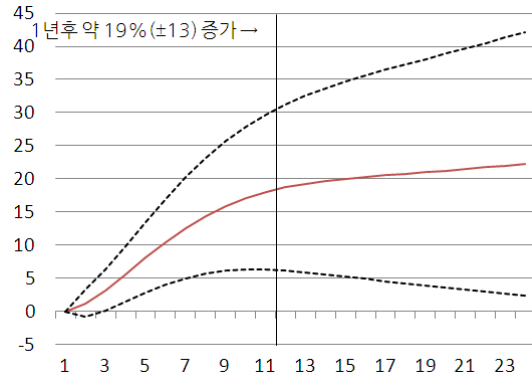
- 원화 대비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효과로 인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 앞의 대 일본 수출에 대한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석 기간 중 엔화 약세가 발생한 원인을 최근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현상 완화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가 우세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이 증대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이 미국의 산업생산에 비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과 달러가 국제통화인 점 등이 작용해 대외충격에 우리나라 경기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임.
  - 일본을 포함했을 때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미국을 포함한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의 증가폭이 일본을 포함했을 때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
-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나 수입을 더 크게 증가시킴.

■ 원화대비 엔화가치 10% 하락시 대 미국 수출 충격반응곡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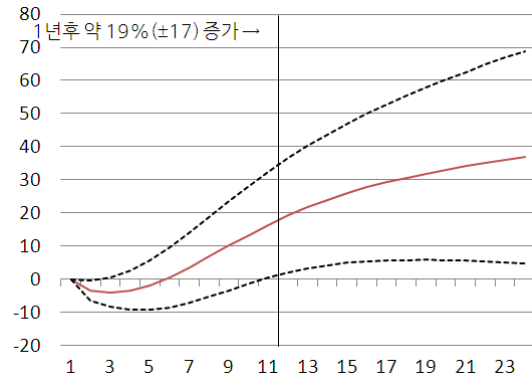
미국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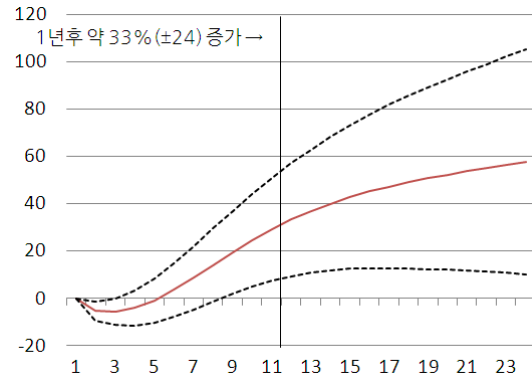
한국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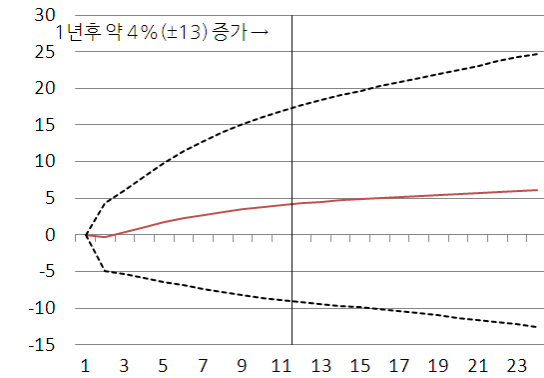
대미 수출 : 증가



대미 수입 : 증가



대미 농수산물 수출 :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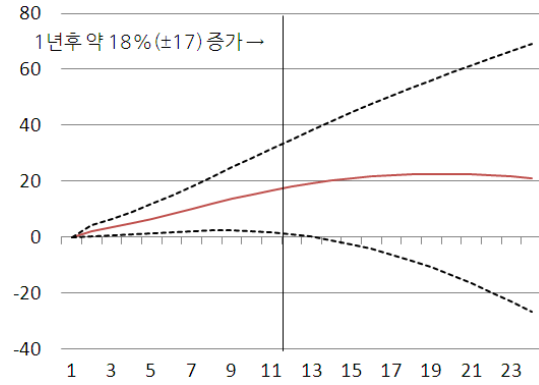


- 주: 1. 점선은 90% 신뢰 구간이며, 모든 선이 함께 x축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는 구간은 충격반응의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음.
- 2. Cholesky ordering: 엔/원 환율, 미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미 수출, 대미 수입, 대미 농수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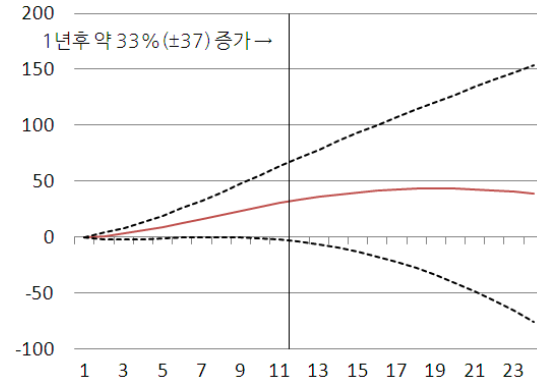
- 본 분석에서는 엔/원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고려하면 원화 대비 엔화 약세의 영향은 달러대비 원화 강세와 달러대비 엔화 약세의 영향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원화 대비 엔화 약세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일본 수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요회복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대 미국 수입의 경우, 엔화 약세 진행의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입도 감소했으나, 경기회복 진행으로 이후 회복되어 증대되었고 상대적인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수출보다 컸음.
- 그러나 엔화 약세의 경기부양 효과는 농수산식품시장에서 크지 않아 대 미국 농수산식품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화대비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가격 경쟁력을 일본의 농수산식품 수출가격에 대비해서 하락시킴.
  -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따른 미국의 경기부양효과로 인한 수요 증대가 가격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제품의 수출처럼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아 수출증대까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대 일본 농수산식품 수출과는 달리 산업생산으로 본 경기 회복의 폭이 크지 않음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과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일본에서 만큼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음.
  - 식품시장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므로 가격변동보다는 경쟁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식품과 우리나라 식품의 경쟁상황은 일본에 비해서 높지 않아 엔화 약세의 영향이 미국 시장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원화대비 엔화가치 10% 하락시 대 중국 수출 충격반응곡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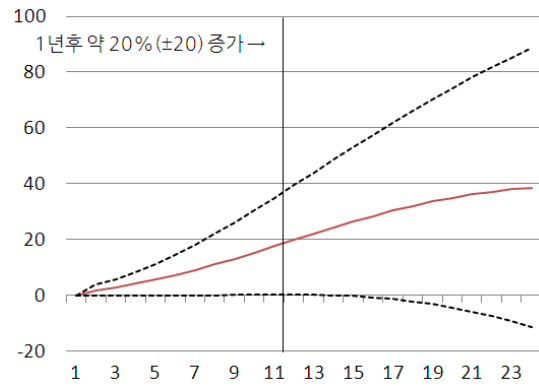
중국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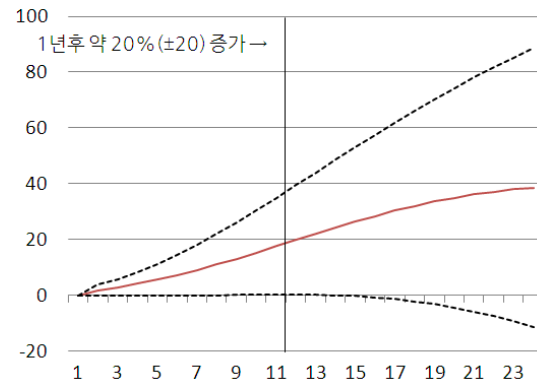
한국 산업생산 :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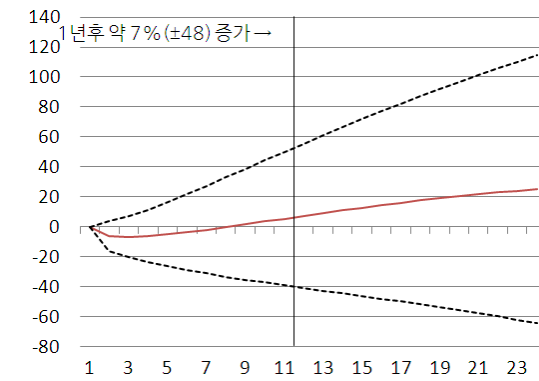
대중 수출 : 증가



대중 수입 : 증가



대중 농수산물 수출 : 유의하지 않음.



- 주: 1. 점선은 90% 신뢰 구간이며, 모든 선이 함께 x축의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는 구간은 충격반응의 방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음.
- 2. Cholesky ordering: 엔/원, 중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대중 수출, 대중 수입, 대중 농식품 수출
- 3. 중국은 산업생산을 전년대비 증가율로만 발표하고 있어 이 경우 중국과 한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분석함.

## ◆ 엔화 약세는 대미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중 수출입을 증가시키나 농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원화 대비 엔화 약세는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음.
  -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회피현상 완화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음.
    - ※ 이전의 분석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산업생산지수를 발표하지 않고, 그 증가율만 발표하고 있어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이전 결과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 중국의 경우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엔화 약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효과가 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나 수입을 더 크게 증가시킴.
  - 원화 대비 엔화 약세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일본 수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단기에도 가격 경쟁력 약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상대적인 원화 강세의 영향이 대 미국 수입에서와 같이 대 중국 수입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며, 원화대비 엔화 약세의 영향이므로 원화 강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옴.
    - ※ 엔/달러 환율에 비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큼.
- 그러나 엔화 약세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에는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해 증가시키지 않음.
  - 대 미국 농수산물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과는 달리 산업생산으로 본 경기회복의 폭이 크지 않음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식품과 일본식품의 경쟁상황이 일본 시장에서보다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4. 결론 및 시사점

- ◆ 2012년 말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선언이후 큰 폭의 엔화 약세가 나타났으며 전문가들 전망치에 따르면 2014년에도 약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는 강세흐름을 유지했으나, 아베정부의 출범에 따른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2% 물가 목표제 등으로 엔화가 약세로 전환됨.
  -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30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대지진 사태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LNG 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로 전환되어 엔화 약세를 원인을 제공함.
  - 또한 일본의 세계 최고 수준의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베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대지진 복구자금 등으로 부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엔화의 위상이 이전보다 낮아짐.
- ◆ 엔화 약세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로 각 국가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나, 농수산식품의 경우 대 일본 수출을 감소시키며, 대 미국 및 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그 효과는 신선식품류에서 더 민감함.

  - 농수산식품 시장에서는 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낮아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가공식품 보다는 신선식품의 제품 차별도가 낮아 엔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따라서 원화 대비 엔화 약세는 일본 식품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 일본 농수산식품 수출의 감소를 가져옴.
  - 다만 미국과 중국의 농수산식품 시장에서 일본 식품과 우리나라 식품의 경쟁 상황이 일본 시장에서만큼 치열하지 않아서 가격 경쟁력 악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 따라서 엔화 약세로 인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의 다변화 및 제품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 엔화 환율의 변동에 따른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제품과 경쟁상황이 낮은 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 있음.
- 더욱이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이외의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가격변동에도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따라야 함.
- 한편, 지속적인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서 환율변동의 위험을 적절히 헤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노력도 필요함.



## 부록: 모형 1,2의 분석방법

- 모형은 다음과 같은 벡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각 변수가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주는 구조를 보임.

$$A(L)Y_t = e_t$$

- 여기서  $Y_t$ 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들의 벡터이고 구성은 다음과 같음.

$$- Y_t = \begin{pmatrix} \text{일본 산업생산} \\ \text{한국 산업생산} \\ \text{대일 총수출} \\ \text{대일 총수입} \\ \text{대일 농식품수출} \\ \text{대일 품목별수출} \\ \text{엔/원 환율} \end{pmatrix}$$

- $A(L)$ 은 후방연산자(lag operator)  $L$ 에 대한 행렬 다항식(matrix polynomial)을 의미하는데, 각 변수들의 시스템 안에서의 계수를 나타내며,  $e_t$ 는 오차 항을 의미함.
-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당기(contemporaneous)에서는 위에 나열한 변수의 순서대로만 영향을 주도록 가정하였음.<sup>2)</sup>
-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생산 증가는 당기에 대일 농수산식품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지만 당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가 한국의 산업생산을 늘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자료의 출처는 한국은행(각 국의 산업생산), 무역협회(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농수산식품수출정보(각국에 대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CEIC(중국의 산업생산) 등임.
-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을 분석할 때는 품목별 수출자료는 포함하지 않고 분석함.
- 각 자료는 월별이며, 무역자료의 경우 계절성(seasonality)을 조정하였으며, HP 필터(Hedrick-PreScott filter)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하고 분석함.

- 모형의 분석에 있어 시스템에 포함하는 변수의 이전 기(lag) 변수들은 1기 이전의 변수만 포함하였고, 금융위기를 고려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음.

\* NBER recession period로, 2007년 1월~2009년 6월 기간 동안에 1의 값을 부여함.

- 분석의 결과 엔저 충격(엔/원 환율의 상승)에 대한 대일 농수산물 수출의 예상 반응곡선을 도출함.

● 대미, 대중 농수산물의 수출 분석에서도 위의 대일 농수산물 수출 분석과 동일한 벡터자기상관회귀(VAR) 모형을 사용하여 시차에 따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대미, 대중 수출 분석에서는 엔/원 환율이 가장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고 가정을 하였고, 엔저로 인한 일본과 한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즉, 한국과 일본이 특정식품의 수출에 있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경합한다면 엔저의 충격이 한국의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함.

- 실증분석 모형의 자료 벡터( $Y_t$ )는 보다 외생적인 순으로 {엔/원 환율, 미국 (중국) 산업생산, 한국 산업생산,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한국의 대미(대중) 수입, 대중 농수산물 수출입.<sup>3)</sup>

- 분석의 결과 엔저 충격(엔/원 환율의 상승)에 대한 대 중국 또는 대 미국 농수산물 수출의 예상 반응곡선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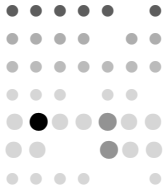
2) 본 연구에서는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적용하였음.

3) 중국은 산업생산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로만 발표하고 있어 이 경우 중국과 한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사용함. 특별히 엔저 효과에 대한 중국 및 한국의 산업생산에 대한 해석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엔저의 효과에 대한 대중 농수산물 수출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둘 것임.

## II.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국제 외환 및 원자재 시장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사항 ① 일본





# 국제외환 및 원자재시장

\* 작성자 : 양다영, 강은정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 국제 외환시장

- ◆ 미국 달러는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경향 완화로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통화 약세

  - 유로존의 2/4분기 GDP 성장률이 7분기 만에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등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
  -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던 엔화 약세 현상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
- ◆ 반면, 달러 대비 BRICs와 아세안 등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중국을 제외하고 전월에 비해 하락

  - 중국의 7월 수출증가율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 ◆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공급,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권 순매수 등으로 전월에 비해 하락

###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3.8.23 (현재)	2013.7.23 (1개월전)	2012.8.23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sup>1</sup>	81.361	81.945	81.359	-0.71	0.00
달러/유로	1.3384	1.3223	1.2564	1.22	6.53
엔/달러	98.74	99.43	78.49	-0.69	25.80
위안/달러	6.1216	6.1374	6.3544	-0.26	-3.66
원/달러	1116.9	1117.0	1130.5	-0.01	-1.20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

## 2. 국제 상품시장

### ◆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호전, 산유국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행가능성이 상승폭을 제한

-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하였음.
  - 미국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시장예상치(1.0%)에 비해 다소 상승한 1.7%(전기대비연율)를 기록하였으며 생산 및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음.
  - 중국의 7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하여 연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7월 소매판매도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 리비아 생산차질 지속 및 이집트 유혈사태로 공급차질 우려가 가중된 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주요 원유 수출항 노동자들이 임금개선 등 처우개선 시위로 인해 리비아 생산차질이 지속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감이 확산되었음.
    - ※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11년 내전 이전에 160~170만b/d 수준이었으나, 내전 당시('11.8월)에는 거의 중단되었음. 이후 내전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최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절반 수준('13.7월 80만 b/d)까지 축소되었음.
  - 이집트 과도정부가 무함메드 무르시(Mohamed Morsy)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형제단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하면서 정정불안이 고조
- 다만 7월 30~31일 개최된 FOMC 회의록에서 의원 대부분이 연내 양적완화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점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하였음.

###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

구분	2013.8.23	2013.7.23	전월대비 증감률(%)
WTI유	106.4	107.2	-0.8%
Dubai유	107.8	104.8	2.8%
Brent유	111.2	107.7	3.2%

자료: Bloomberg.

## ◆ 국제곡물가격은 수급여건 개선, 온화한 기후여건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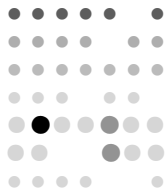
- **소맥가격은 미국 소맥 경쟁력 약화 및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
  - 미국 소맥 가격이 다른 생산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소맥 가격이 하락
  - 미 농무부(USDA)는 2013/14년도 소맥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소비량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7억 680만 톤, 생산량은 8.0% 늘어난 7억 540만 톤으로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USDA 8월)
- **옥수수 가격은 온화한 기후 여건 및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큰 폭 하락**
  - 최근 미 중서부 지역의 온화한 날씨 전망에 따라 하락세 지속
  - 미 농무부는 2013/14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대비 11.5% 증가한 9억 5,72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 소비량은 전년대비 7.1% 늘어난 9억 3,010만 톤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2,710만 톤 정도 상회하여 기말재고량도 전년대비 22.0%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대두 가격은 중국의 대두 비축물량 방출 소식 및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
  - 중국이 약 300만 톤의 대두 비축물량을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대두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손절매(stop-loss) 물량이 출하하면서 하락압력이 증대
  - 8월 중순에 미 중서부 지역에서 서늘한 기후가 예상되면서 대두의 단위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대두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짐.

### ■ 세계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

구분	2013.8.16	2013.7.16	전월대비 증감률(%)
소맥	631.0	669.4	-5.7%
옥수수	473.6	545.2	-13.1%
대두	1,529.25	1,475.25	-14.6%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① 일본

\* 작성자 : 박지현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1. 검역제도 변경 사항

### ◆ 수입 식물 및 식물품목 검역제도 3차 개정안(2013. 7. 23)

- 일본은 2013년 7월 21일 식물검역제도 개정에 대한 내용을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sup>4)</sup>.
  - 이는 2013년 6월 28일 WTO에 통보된 ‘Amendment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lant Protection Law and Concerned Public Notices<sup>5)</sup>’의 3차 수정안임.
- 농림수산성은 이번 제3차 수정안에 검역유해식물 923종, 검역 대상 외 유해동식물 405종,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사 대상이 되는 지역, 수출에서의 식물검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 등을 공표하였음.
  - 특히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사 대상이 되는 지역’에 한국이 포함됨.
    - ‘garden rhubarb’, ‘Beta and Brassica’ 등의 검사요망 식물 검토
    - ‘Heterodera schachtii’ 유해충 발생지역 검토

### ◆ 품목별 검역조치 발표(2013. 8. 6)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식품에 대한 품목별 검역조치를 발표하였음.
  - 신선 청고추 및 간이 가공품(시메코나졸 성분) 명령검사<sup>6)</sup> 해제 조치
  - 홍고추 및 간이 가공품(지페노코나졸 검출 위반)1년간 모니터링검사<sup>7)</sup> 강화 조치

4) G/SPS/N/JPN/316/Corr.1

5) G/SPS/N/JPN/316

6) 과거의 식품위생법 위반경험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약식품안전국 식품안전부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에서 매년 명령검사 대상을 설정하여 각 검역소에 전달함.



- 한국산 식품에 대한 지그롤포스(DDT) 모니터링검사 강화 해제 조치
- 한국산 장어 항생제 엔로프로키사신 모니터링검사 강화 해제 조치

####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항목과 기준 개정(2013. 6. 14)<sup>8)</sup>

- 현재 생선, 날것으로 먹는 조개류, 생굴, 그리고 냉동식품(냉동생선 및 조개류에만 한정된) 가공기준에 의해 화학적으로 합성화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은(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제외) 금지되고 있음.
- 또한 고압밀봉과 열을 이용하여 살균되거나 용기에 포장되어 나오는 식품의 제조 기준 역시 화학적으로 합성화된 식품첨가물을 방부제나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제외).<sup>9)</sup>
- 이번 개정안에서는 첫째, 날 생선이나 조개류, 굴, 냉동식품과 같이 날 것으로 먹는 식품 가공시에는 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수,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조절로 쓰이는 염산 등의 사용이 허가될 예정임.
  - 둘째, 고압밀봉 또는 열을 이용하여 살균되거나 용기에 포장되어 나오는 식품에 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수 사용이 허가될 예정됨.

#### ■ 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수, 염산 사용 기준 ■

첨가물	해당되는 식품	최대 기준치	사용 한계치
아염소산수	백미(도정미), 콩과 식물 및 콩류, 버섯을 제외한 채소, 과일, 해조류, 생선, 조개(고래고기 포함), 날 육류, 가공육류, 가공 고래고기 위에 나열된 식품들의 저장된 형태 (염장 혹은 건조)	0.40/kg 용액에 담그거나 스프레이	제품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분해되거나 제거 되어야 하는 정도
차아염소산수	-	-	위와 동일
염산	-	-	위와 동일

자료: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sps/JPN/13\\_2241\\_00\\_e.pdf](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sps/JPN/13_2241_00_e.pdf).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검사는 검역소에서 직접 정밀검사를 수행하여 통 관여부 결정
- G/SPS/N/JPN/315
- 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정립되었으며, 개별 식품군에 있어서 첨가물 사용은 그 필요성과 특수성에 따라 생산 공정 기준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음.

## ◆ 외국 공적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 인정제도 실시(2013. 4. 1)

-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에서 바로 제조되지 않고 제3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을 경유 또는 직접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에도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
  - 이는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시 일본 수입 검역단계에서 동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함.
  - 동 제도는 현지국 일본 도착시 식품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정치임으로 수출전 반드시 국내검사를 받고 수출하는 것이 필요

## ◆ 201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2013. 3)

- 수입신고서 작성시의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확인
  - 범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 발동
    -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 돼지고기, 장어, 장어 및 그 가공품,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바지락 및 그 가공품, 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
- 2013년도에는 병원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장내출혈을 일으키는 세균검사 실시
-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
  -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 규제 증가
  - 가공식품의 경우 PLS 도입으로 인해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바이어들로부터 PLS 대책자료 요구를 받고 있음; 고춧가루, 인삼가공제품, 유자청 등<sup>10)</sup>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 수입제도 변경 사항

### ◆ 수입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2013. 6)

- 최근 급증하는 한국의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원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료산지를 표시해야 함.
  - TPP 체결 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이 복잡하게 얽혀 원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 변경될 것으로 전망
  -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품목임.

### ◆ 출항전보고제도 2014년 3월 시행

- 일본 관세국에서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일본 세관에 보고하도록 함.
  - 보고대상;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해상 컨테이너 화물
  - 보고내용; 선박회사 및 이용운송사업자가 파악하고 있는 적하정보
  - 보고방법;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보고를 의무화
  - 벌칙; 보고기한까지 보고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



**aT Focus**

제32호

**엔저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파급영향**

**보고서작성**

KIEP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허 인 연구위원

KIEP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양다영 전문연구원, 강은정 연구원

KIEP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박지현 전문연구원

내용문의 : KIEP 양다영 전문연구원 02) 3460-1223

발 행 : 2013. 8. 28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4

- 「aT포커스」는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http://www.kati.net)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